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지원¹, 최수미¹, 오수미¹, 배성윤^{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인제대학교 경영학과

Factor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iwon Kim¹, Su Mi Choi¹, Su Mi Oh¹, Sung Yoon Bae^{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Management, Inj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상남도 C시 4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학업스트레스는 성적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학과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임상실습만족도가 학과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실습환경의 질적 개선과 산학 간의 지속적 노력으로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stress on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with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 survey was conducted on nursing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who had clinical experience and were enrolled at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C City Gyeongsangnam-do.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artment satisfaction, a dependent variable, exhibit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ut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significantly affected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 comparison of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howed tha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erms of improving department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s should be enhanced by focusing on quality improvements and improving relationship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본 논문은 2023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ung Yoon Bae(Inje Univ.)

email: ehealth@inje.ac.kr

Received March 12, 2024

Accepted May 3, 2024

Revised April 29, 2024

Published Ma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학문으로 임상실습을 통한 역량강화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1]. 간호대학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과 실습의 통합적 사고를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간호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공 실무교과목이다[2,3]. 이에 간호대학은 3-4학년 교육과정에 이론 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치료적 의사소통술, 간호과정을 적용한 문제 해결 능력, 핵심간호술을 적용해 봄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긍심 등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3-5], 동시에 미숙한 업무수행, 간호사들의 무관심,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6].

4학년 임상 실습생들은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수업의 다양한 전공 교육을 통한 국가고시 준비로 학업스트레스까지 가중된 실정이다[7].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8]. 이는 대다수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일반 대학생에 비하여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9-11]. 적절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는 대학 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2].

학과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이라고 한다[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13],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고,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14]. 따라서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하고 국가고시라는 큰 문턱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의 부담감으로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의 이중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15]. 최근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취업이 보장된다는 간호학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4학년의 경우에

는 취업준비와 국가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가중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5].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와 함께 대학생들의 대표적 스트레스 중 하나로서[16],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적 장애가 유발되어 신체 건강의 이상뿐만 아니라 학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17].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일 때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 후, 이들 변수 간에 관계 및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학과만족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C시에 위치한 3개 간호대학의 3, 4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최소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해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118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고 중도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1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담감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연구자는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자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 자발적 동의 및 거부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고 설문지 작성 후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조경숙과 강혜숙(1984)[18]이 개발한 도구를 이순희 외(2004)[19]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문항 3개, 실습지도 문항 9개, 실습내용 문항 6개, 실습시간 문항 3개, 실습환경 문항 7개, 실습평가 문항 3개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외(2004)[19]가 수정·보완한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4.2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 et al.(2002)[20]가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신동우와 유계숙(2013)[21]이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정서소진 5문항, 냉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동우와 유계숙(2013)[21]이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2.4.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정의석과 노안영(2001)[22]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석과 노안영(2001)[2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4.4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23]를 기초로 김계현과 하혜숙(2000)[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7문항이며 전공의 교과내용 및 운영 5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3문항, 전공 관심 7문항, 학과의 사회적 인식 5문항, 학교의 사회적 인식 7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계현과 하혜숙(2000)[24]이 개발한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②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③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 ④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 중 분석에 포함된 134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21세와 22~23세가 각각 38.0%, 39.6%를 차지하였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학점)은 3.5~4.0이 4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는 '높은 취업을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5.8%로 가장 많았다. 성격은 내성적인 학생이 60.4%로 외향적인 학생보다 1.5배 가량 많았으며, 재학생 중 편입생은 전체의 8.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N=134)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Percent(%)
Gender	Female	110	82.1
	Male	24	17.9
Age	20 ~ 21	51	38.0
	22 ~ 23	53	39.6
	Above 24	30	22.4
School year	Junior	74	55.2
	Senior	60	44.8
GPA	2.0 ~ 3.0	12	9.0
	3.0 ~ 3.5	43	32.0
	3.5 ~ 4.0	54	40.3
	Above 4.0	25	18.7
Motivation for choosing this major	Considered high-school grades	7	5.1
	Recommendations (Parents/Teachers/Friends)	29	21.6
	Aptitude and interests	31	23.1
	Professional job	18	13.4
Character	High employment rate	48	35.8
	Introverted	81	60.4
Transfer status	Extroverted	53	39.6
	No	123	91.8
Sum	Yes	11	8.2
		134	100.0

Table 2.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N=134)

Variables	Divis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M(S.D)	M(S.D)	M(S.D)	M(S.D)
Gender	Female	3.73(0.61)	2.97(0.58)	2.53(0.71)	3.89(0.54)
	Male	3.69(0.66)	2.91(0.55)	2.47(0.82)	4.01(0.69)
Age	<i>t(p)</i>	0.273(0.786)	0.512(0.610)	0.384(0.702)	-0.760(0.449)
	20 ~ 21	3.74(0.66)	3.03(0.59)	2.54(0.56)	3.91(0.56)
	22 ~ 23	3.72(0.63)	2.97(0.55)	2.60(0.78)	3.95(0.56)
	Above 24	3.70(0.53)	2.85(0.59)	2.37(0.87)	3.85(0.58)
School year	<i>F(p)</i>	0.029(0.971)	0.901(0.409)	0.973(0.381)	0.290(0.749)
	Junior	3.66(0.65)	3.04(0.56)	2.44(0.70)	3.86(0.59)
	Senior	3.80(0.57)	2.87(0.59)	2.62(0.75)	3.96(0.53)
	<i>t(p)</i>	-1.305(0.194)	1.722(0.088)	-1.353(0.178)	-0.988(0.325)
GPA	2.0 ~ 3.0	0.390(0.83)	3.05(0.76)ab	2.52(0.85)	4.16(0.61)
	3.0 ~ 3.5	3.65(0.59)	3.22(0.47)b	2.56(0.80)	3.88(0.58)
	3.5 ~ 4.0	3.79(0.64)	2.86(0.52)ab	2.64(0.67)	3.87(0.59)
	Above 4.0	3.60(0.47)	2.70(0.60)a	2.20(0.59)	3.94(0.44)
Motivation for choosing this major	<i>F(p)</i>	1.095(0.354)	5.711(0.001)	2.001(0.117)	0.788(0.503)
	Considered high-school grades	3.67(0.71)	3.05(0.40)ab	3.07(0.81)	3.88(0.85)
	Recommendations (Parents/Teachers/Friends)	3.47(0.68)	3.21(0.61)a	2.37(0.73)	3.86(0.59)
	Aptitude and interests	3.81(0.51)	2.78(0.56)ab	2.40(0.84)	4.04(0.55)
	Professional job	3.94(0.68)	2.75(0.71)b	2.34(0.46)	4.01(0.53)
	High employment rate	3.75(0.59)	2.99(0.47)ab	2.66(0.66)	3.82(0.55)
Character	<i>F(p)</i>	1.919(0.111)	2.963(0.022)	2.082(0.087)	0.812(0.520)
	Introverted	3.72(0.60)	3.01(0.60)	2.53(0.67)	3.89(0.53)
	Extroverted	3.73(0.65)	2.88(0.54)	2.51(0.81)	3.95(0.61)
	<i>t(p)</i>	-0.075(0.941)	1.258(0.211)	0.131(0.896)	-0.540(0.590)
Transfer status	No	3.74(0.63)	2.94(0.58)	2.52(0.72)	3.92(0.58)
	Yes	3.56(0.36)	3.18(0.53)	2.57(0.84)	3.79(0.30)
	<i>t(p)</i>	0.902(0.369)	-1.289(0.200)	-0.203(0.839)	1.158(0.263)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이

성별, 연령, 학년, 성적, 전공선택동기, 성격, 편입여부 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응답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설문응답자의 성적(학점)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점이 4.0보다 높은 학생은 성적이 3.0~3.5인 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0 vs. 3.22), 부모나 담임교사, 친구 등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전문직을 선호해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3.21 vs. 2.75).

3.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의 실증모델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종속변수인 학과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로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r=.692$ ($p<.01$)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학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로 상관계수가 $r=-.435$ ($p<.01$)이었다. 종속변수인 학과만족도와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만족도는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3.4 대상자의 학과만족도 영향 요인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3.515$, $p<.01$), 모형의 설명력은 48.8%로 나타났다($Adjusted R^2=0.488$). 독립변수로 투입된 성별, 연령, 학년, 성적, 편입여부,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중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특히, 임상실습만족도는 표준화 회귀계수(beta)가 0.619로 학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과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준화 회귀계수(beta)가 -0.161로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N=13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			
Academic stress	-.435**	1		
Employment stress	-.167	.405**	1	
Department satisfaction	.692**	-.418**	-.285**	1

** $p<.01$, * $p<.05$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N=134)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379	0.529		4.500	0.000
Gender(1=Male)	0.028	0.109	0.018	0.253	0.801
Age	-0.003	0.009	-0.025	-0.304	0.762
School year (1=4th grade)	0.069	0.083	0.062	0.832	0.407
Character (1=Extroverted)	0.059	0.082	0.052	0.718	0.475
Transfer status (1=Transferred)	-0.007	0.153	-0.003	-0.043	0.96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572	0.073	0.619	7.820	0.000
Academic stress	-0.107	0.090	-0.101	-1.192	0.236
Employment stress	-0.123	0.062	-0.161	-2.001	0.048

$F=13.515$ ($p<.001$), $R^2=0.528$, $Adjusted R^2=0.488$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만족도는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25,26].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실습지원과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후 평가에 대한 학과 차원의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간호 전문성과 직업적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236$).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27].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27,28], 본 연구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3학년이 평균 3.04점, 4학년이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3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4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과, 국가고시 준비, 취업 준비와 관련한 각종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학과만족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21].

셋째, 취업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였다[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과만족도가 낮을수록 성적 저조와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13,27].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대부분의 졸업생은 병원의 임상간호사로서 취업 하는 것으로 볼 때 졸업 후 발생하는 이직 또는 직업전환의 가능성을 줄이고 임상간호사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팀 기반 학습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과는 간호대학생의 학과 특성에 따른 자발적 참여와 호기심을 유도한 학습환경 마련, 튜터링 프로그램, 전공 소개 체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갖도록 학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에 간접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취업관련 워크샵, 취업특강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실

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상남도 C시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임상실습 경험의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임상실습 교육 환경 마련, 다양한 임상실습지 확보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학-산학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제 현장에서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학습 동기를 높이며, 학과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학생들이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선적임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는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A. K. Lee, H. S. You,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1, No.2, pp.154-163, 2015.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2.154>
- [2] H. S. Park, D. S. Choi, H. C. Kim,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Humanities Social Sciences21*, Vol.13, No.1, pp.2079-2092,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1.147>
- [3] M. Y. Jo,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 - 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asic Nursing*, Vol.21, No.3, pp.292-301, 2014.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4>
- [4] K. M. Kim, B.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Society*, Vol.14, No.10, pp.885-896,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85>
- [5] J. S. Lee, J. E. Hong, M. S. Won, S. H. Park,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on career readiness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Academia Technology*, Vol.23, No.3, pp.124-133, 202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2.23.2.124>
- [6] H. J. Kim, "The impa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8, pp.315-322, 2020.
DOI: <http://dx.doi.org/10.21184/ikeia.2020.12.14.8.315>
- [7] I. A. Shaban, W. A. Khater, L. M. Akhu-Zaheya,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sources and coping behaviour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training: A Jordanian perspectiv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2, No.4, pp.204-209, 2012.
DOI: <http://dx.doi.org/10.1016/j.nepr.2012.01.005>
- [8] B. G. Park, S. M.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No.2, pp.563-585, 2012.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_DE06763900
- [9] S. K. Yang, M. R. Jung, "The Influences of Academic-burnout,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Society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Vol.16, No.11, pp.613-629,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 [10] S. M. Park, J. L. Lee, S. Y. Yoo,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and upward socialcomparison on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9, No.1, pp.41-50, 20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17542>
- [11] J. A. J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Academia Technology*, Vol.17, No.4, pp.587-59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 [12]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asic Nursing*, Vol.19, No.2, pp.261-268,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13] B. Jung, S. H. Ahn, Y. J. Oh,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Employment Career Association*, Vol.11, No.1, pp.159-181, 202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60468>
- [14] S. H. Park, E. K. Byeon, "Effect of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Female Nursing students", Vol.8, No.4, pp.99-106,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4.99>
- [15] B. M. Kang, "The causes of psychosocial stress and way of coping with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Focused on difference of gender, grade level major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pp.1-2, 2003.
<https://www.riss.kr/link?id=T8948130>
- [16] M. J. Park, J. H. Kim & M. S. Jung, "Career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1, pp.417-435, 2009.
DOI: <http://dx.doi.org/10.15703/kjc.10.1.200903.417>
- [17] Y. S. Seo,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8, No.1, pp.1377-1385, 2020.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20.06.30.1377>
- [18] K. S. Cho, H. S. Kang, "The Study of the Self - Concept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DOI: <https://doi.org/10.4040/jnas.1984.14.2.63>
- [19]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428835720888#>
- [20] W. B. Schaufeli, I. M. Martez, A. Marques Pinto, M. Salanova,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pp.464-481, 2002.
https://www.isonderhouden.nl/doc/pdf/arnoldbakker/articles/articles_arnold_bakker_78.pdf

- [21] D. W. Sin, G. S. Yoo,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pp.3849-3869,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6.201312.3849>
- [22] E. S. Chung, A. Y. No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Study*, Vol.33, pp.85-101, 200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619>
- [23] J. L. Epstein, J. M. Mcpartland,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school lif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13, No.1, pp.15-30, 1976.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1.007>
- [24] K. H. Kim, H. S. Ha, "A Study on the Factors of Undergraduat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Research*, Vol.1, No.1, pp.7-20, 2000.
<https://www.riss.kr/link?id=T7653021>
- [25] J. H. Han,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on Job-Seek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Computer Information Society*, Vol.28, No.7, pp.103-111, 2023.
DOI: <http://dx.doi.org/10.9708/jksci.2023.28.07.103>
- [26] Y. M. Jo,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Digital*, Vol.19, No.11, pp.607-614, 20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11.607>
- [27] H. J. Park, E. J. Yoo, H.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actors Affecting Self-Effectiven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Society*, Vol.20, No.2, pp.310-322, 202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0.20.02.310>
- [28] M. Y. Kim,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0, pp.294-302,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0.294>

김 지원(Jiwon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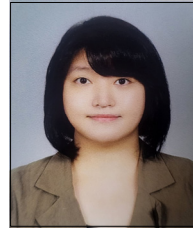
- 2014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20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11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최 수 미(Su Mi Choi)

[정회원]



- 2023년 8월 :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23년 8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오 수 미(Su Mi Oh)

[정회원]



- 2016년 2월 : 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박사수료)
- 2018년 3월 ~ 2023년 8월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3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건강증진, PTSD

배 성 윤(Sung Yoon Bae)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9년 5월 : Fuqua School of Business, Duke Univ. (MBA)
- 2001년 8월 ~ 2003년 12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료경영, 보건정책, 경영전략, 기술평가